

두 번째 만남

19

성(性)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미치는 사회의 영향력은 얼마나 클까요?
CUM 친구들에게 성(性)에 대해 느끼게 하거나 정보를 가장 많이 주는
대중매체는 무엇일까요? 아래에 적어보세요.

성에 대한 느낌이나 정보를 가장 많이 주는 대중매체	성에 대해 얻게 된 정보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광고, 신문, 잡지, 책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얻게 된 성(性)에 대한 정보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긍정적인 영향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일까요? 먼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특징을 대중매체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까칠남, 초콜릿 복근

요즘은 못된 남자, '까칠남'이 매력 있고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요즘 브라운관을 뜨겁게 달구며 인기를 한몸에 받는 캐릭터도 역시 까칠남들이죠. '추노'의 대길, '별따'의 원강하, '파스타'의 쉐프로 나오는 이선균. 이 까칠남들은 자기중심적이며 아주 냉소적인 눈빛과 얼굴,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상처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의외로 따뜻하고, 순수한 면이 많은 점이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한 인물에게서 보이는 두 인격(속마음은 아니지만 겉으로만 까칠한 척하는)을 동시에 보고 느끼면서 어떤 선택을 하기는 쉬울 수 있지만, 과연 현실 세계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정말 나쁜 남자인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남자인지 분간하기 쉬울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프로그램과 광고에서, 아이돌 그룹과 인기 연예인들이 앞다투어 잘 만들어진 탄탄한 복근을 보여주며 남성적인 모습을 발산하여 여심을 사로잡고 있죠. 정말 ‘초콜릿 복근’ 열풍이라고 할 만큼 이 시대 매력적인 남성의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방송매체에서 이러한 세태를 다루었는데, 일부 연예인이나 운동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3~40대 일반인들도 초콜릿 복근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고, 심지어 1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비용에도 초콜릿 복근 성형수술을 감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더 이상 외모 가꾸기와 몸매 가꾸기는 여성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S라인’, 꿀벅지

그러면 여성이 지닌 성(性)적인 특징은 어떤가요?

특히 여성의 성(性)은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고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S라인’과 ‘섹시함’은 매력 있는 여성의 필수조건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눈 요깃거리의 대상이 된 여성의 몸은 ‘꿀벅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많은 여성이 날씬하고 섹시한 몸을 갖도록 부추기고 있지요.

그 결과 무리한 다이어트와 범람하는 온갖 성형수술은 오히려 여성의 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점점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광고에서 상품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상품에 대한 흥미를 끌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의 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우리는 주위에서 언제든지 관찰만 하면 성(性)이 상품화되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걱정스럽게도 성(性) 상품화의 확산은 성(性)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 십대들에게 성(性)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여성과 남성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이성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버럭 성격과 초콜릿 복근인가요? 아니면 S라인의 섹시함에 있나요?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온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준 피겨 스케이터 김연아 선수와 스피드 스케이터 이상화 선수를 비교하는 여론에 대해 “누군가는 (저와 김연아를)여신 대 여왕이라고 비교하시는데 솔직히 연아가 더 예쁘고, 몸매도 날씬하죠. 그렇지만 저도 저만의 매력이 있지 않겠어요?”하고 말한 이상화 선수의 말이 인상적으로 남네요.



성(性)과 대중매체의 영향

혹시 여러분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연예인, 또는 텔레비전 속 다른 사람에게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던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 그런 경험을 하고 있나요? 그런 경험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매체를 통해 보이는 모습과 행동, 말투, 놀이 방법, 관계 안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달콤하고 성대한 이벤트 속에서 사랑과 결혼의 중요성이 점점 장난스런 놀이에 묻혀버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현실과 가상의 세계는 그 경계선이 불분명해지고 결국 결과와 책임이 빠져 있는 이성관, 연애관은 성(性)과 관련된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될 거예요.

사실 대중매체의 세력은 아주 강해서 우리를 아주 재미나게 해줄 수 있는 힘도 있지

만 한편으로는 상업적인 속성 때문에 지나친 선정성과 폭력성 등이 강조되어 우리를 점점 더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매체를 모방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매체를 이용한 성폭력이 일어나 우리를 슬프게 하지요. 그리고 최근에 PC게임에 빠져있는 아들을 말리는 어머니가 그 아들에 의해 살해된 사건 그리고 점점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도 이런 대중매체의 영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현실의 생활상을 담으려는 것이 대중매체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매체를 통해 보이는 모습은 그 속성상 과장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식을 지니고 자기만의 색깔로 개성점수 10점 만점의 10점을 키워나가는 멋진 십대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Cum 김혜정 베로니카(한국틴스타 교사)



남자는 왜 여자에게 말싸움에서 질까?

보통 남자와 여자가 말싸움을 하면, 대개는 남자가 지게 되죠. 그 이유는 언어력을 담당하는 뇌의 구조와 활용에 있습니다. 남자들이 말할 때 주로 좌뇌만 활용하는 데 비해, 여자들은 교량을 통해 좌뇌와 우뇌를 함께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대학 심리학과 배런 코언 교수를 따르면 여성은 언어력을 관장하는 좌반구가 남성보다 크게 발달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월등히 우수할 뿐만 아니라, 대뇌피질의 신경세포 또한 남자보다 11%가량 더 많은데 특히 언어구사 등에 할애된 부분에 신경세포가 더 뻗뻗이 들어차 있어 '언어를 순발력 있게 구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순간적으로 단어를 생각해낼 때 좌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100~200개 정도의 단어를 떠올리지만, 여성은 좌뇌뿐만 아니라 우뇌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남자의 10배에 해당하는 1,000~2,000개의 단어를 동시에 떠올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성이 하루에 약 7,000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2만개의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그렇다고 남자 친구를 기죽지 마세요. 비교적 언어능력은 떨어져도 공간 지각력이라든지, 순발력, 운동신경 등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더 발달하여 있으니깐요.

이렇게 여자가 모자라는 부분은 남자가, 남자가 모자라는 부분은 여자가 갖추고 있으니 서로 싸우지 말고, 도우며 살아야겠죠. ^^